

선거법 위반 광주·전남 단체장 판결 희비

1심 당선무효형 유두석 장성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

김성 장흥군수는 1심 90만원 항소심서 500만원... 상고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광주·전남 단체장들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단체장들 재판 결과는=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지자치단체장은 6명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18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지만 항

소심에서 감형,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유 군수 부인 이청 전 장성 군수도 1심(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선거 사무장 이모 씨도 벌금 8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형됐다.

김철주 무안군수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성 장흥군수만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항소심까지 마친 3명은 모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을 한 차례씩 선고받았다.

이와함께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이 다음달 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병중 고흥군수, 이용부 보성군수는 재정신청을 거쳐 최근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곳 뿐인 항소심 재판부=광주·전남 선거사건 항소심은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가 사실상 전담한다.

재정신청 등 일부 예외적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를 빼면 광주고법의 형사부는 한 곳 뿐이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엄벌의 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형량과 관련해 여러가지 말이 나오지만 되도록이면 대법원 양형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판사가 재판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이른바 '작량(酌量·집적해서 해아림)감경'을 엄격히 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내비쳐왔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회용 구청장에 대한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발전연 통합은 혁신의 골든타임”

23년간 광주·전남 발전 매진 이근철 원장 퇴임

여수세계박람회, 빛가람혁신도시, 고흥우주발사센터 등 광주·전남의 현안들을 구상하고 실현시켰던 '계획가' 이근철(60) 전남발전연구원 원장이 18일 퇴임했다.

지역의 미래전략과 사업을 고민하며 광주·전남도, 지역전문가와 소통했던 그는 향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새로운 삶을 개척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남발전연구원원이 출범한 지난 1992년 3월 연구원부터 시작해 선임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1월 제12대 원장에 선임됐다. 전국 시·도발전연구원 가운데 연구원 출신 첫 원장이라는 기록도 남긴 그는 23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여하는 초광역 혁신협의회를 출범시켜 6년간 사무국장도 역임하며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상징인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제안했고, 여수세계박람회, 전남생물산업, 광주 도심권 제3순환도로 건설 등 그의 손끝에서 나왔다.

1996년에 지정된 '광주·목포 광역개발권' 등 전국 7대 광역개발권을 최초로 제안해 영산강유역공동체로 확대 발전시킨 것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그는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과 계획 속에서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시장, 도지사, 고위공무원은 물론 담당 직원까지 찾아다니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종영 전남지사를 수차례 찾아가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조성하는데 따른 이해득실을 설명하고 결국 합의까지 이끌어낸 일화는 유명하다. 그의 이 같은 노력으로 전국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빛가람혁신도시에 안착했다.

지난 2007년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8대 혁신리더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그동안 광주·전남으로부터 분을 넘치는 대우를 받았고, 그 누구보다 전남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밀력이나마 지역에 봉사하겠다"며 "통합연구원 이·도민 기도와 성원을 받고 있는 만큼 통합을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해 그 위상을 견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자격박탈형 선고는 군민화합·발전 저해”

법원, 유두석 군수 양형 설명

“자격박탈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군민 화합 및 지역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법원이 유두석 장성군수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밝힌 양형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유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리랑호에 잡힌 '소양호 가뭄' 한국의공우주연구원(원장 조광래)은 18일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2호, 3호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소양호 지역을 촬영한 위성 영상을 공개했다. 왼쪽은 아리랑 2호가 2012년 4월 20일 촬영한 장면, 가운데는 아리랑 3호가 2015년 3월 22일 촬영한 장면, 오른쪽은 아리랑 3호가 6월 17일 촬영한 장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美 연준 “경제 완만 확장”... 기준금리 연내 인상 가능성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돼 왔다”고 말해 현재 제로(0) 수준인 기준금리의 연내 인상 가능성을 키웠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를 통한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종전과 같은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의 '확장'과 함께 고용시장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실업률이 안정 상태로 유지되면서 일자리 증가가 개선됐다”고 진단한 연준은 “노동 시장의 유유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도 연준은 “노동시장이 더 개선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 목표치를 향해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reasonably confident)

이 설 때 연방기금금리 목표치 인상이 적절하다고 기대한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연준은 별도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을 기존의 2.3~2.7%에서 1.8~2.0%로 낮췄다.

그러나, 내년의 예상 성장률은 2.3~2.7%에서 2.4~2.7%로 예상 범위의 하단을 조금 높였고, 2017년의 예상 성장률은 2.0~2.4%에서 2.1~2.5%로 상단과 하단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17명의 FOMC 회의 참가자들 중 9명 인상이 시점으로 올해를 지목한 사람은 15명, 내년을 목한 사람은 2명으로 지난 3월 정례회의 때와 같았다.

/ 연합뉴스

광양항 컨부두 배후단지 입주 기업 5개사 선정

남해물류·다오요트 등

광양시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동측 배후단지 입주 대상 기업으로 5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입주업체 신청을 받은 후 심사과정을 거쳐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5개사는 운송중개·기계금융 제조업체인 남해물류(주), 특수 소형선박·레저보트 제조업체인 ㈜다오요트, 비료 등 유통회사인 ㈜아이젠스타, 버스 재배수입원료 유통회사인 ㈜운누리버섯, 발광다이오드(LED) 제조 유통회사인 ㈜꿈코로시스 등이다.

이들 5개사는 입주 허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8월부터 시설공사에 착수해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광양시는 이들 5개 업체의 입주로 고용유발 효과 460명, 신규투자 280억원, 연간 6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의 물동량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그동안 제조와 물류기능을 갖춘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꾸준한 상담과 방문 등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광양=박영진기자 pyi4079@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윤영용 병원

상무지구 병원

신세계백화점

인레이: 노안리식/Karma r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드를 니어비전 인레이

신세계백화점

부작용: 수술 후 아가 빛반질,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증-59153호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